



제목	비잔티움 제국 최후의 날
발행언어	한국어
발행처	산처럼
발행일	2015. 8. 10.
저자	로저 크롤리 이재항 옮김
출판도시	서울
페이지수	544
ISBN 또는 ISSN	978-8990062598

내용 요약

『비잔티움 제국 최후의 날』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할 때부터 몰락할 때까지, 또 그 이후의 일들을 다룬 책이다. 이슬람과 기독교 양측의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전투 전후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한 점이 돋보인다.

“불타는 바다”라는 제목의 장은 629~717년까지 이슬람권과 비잔티움 제국 간의 갈등과 충돌을 담고 있다. “이스탄불을 꿈꾸다”는 1071~1422년까지 튀르크 제국의 확대 과정을 적었다. “술탄과 황제”는 1432~1451년까지 메흐메트 2세와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제위 승계 과정과 개인적 성향을 적었다. “목을 따다”는 1451년 2월~1452년 11월까지 콘스탄티노플을 겨냥한 요새 건설 과정을 설명하였다. “킴킴한 교회”는 1452년 11월~1453년 2월까지 콘스탄티노플 내의 사람들의 공포심에 관해 서술하였다. 이후의 글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는 과정을 몇 개월, 며칠 단위로 쪼개어 상세하게 적은 것이다. “성벽과 대포”는 1~2월, “별처럼 수많은”은 3~4월, “무시무시한 종말의 광풍”은 4월 6~19일, “하느님이 주신 바람”은 4월 1~20일, “유혈의 소용돌이”는 4월 20~28일, “무시무시한 무기들”은 4월 28일~5월 25일, “예언과 장소”는 5월 24~26일, “이 날짜를 기억하라”는 5월 27~28일의 상황을 적었다. 5월 29일 도시가 함락된 날은 시간 별로 나누어 적었다. “잠긴 물들”은 오전 1시 30분, “한 줌의 흙”은 오전 6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. “현존하는 세계적 공포”에서는 1453~1683년까지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한 기독교 세계의 반응과 튀르크 제국의 강력함을 서술하였다.